

외래 잡초 발생 및 방제전략(13)

미국가막사리

(devil's beggar-ticks)

요즘 물가나 빈터 등에서 자주 볼수 있는 미국에서 건너온 외래잡초이다.
 토양처리제는 설포닐우레아계 제초제를 교호살포하여 처리하며
 경엽처리제로는 피리벤족심유제, 비스피리박소디움액제 등으로 방제한다.

요즘에 물가나 빈터 등에서는 가막사리(*Bidens tripartita*)보다는 미국가막사리(학명 : *Bidens frondosa*, 영명 : devil's beggar-ticks)가 더 자주 눈에 띈다. 가막사리는 자생잡초이고 미국가막사리는 미국에서 건너온 외래잡초이다. 이 두 종류의 잡초는 국화과의 일년생잡초로 종자로 번식하며, 습한 곳을 좋아하여 논외 가장자리, 논둑, 휴경지 또는 소택지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가막사리는 줄기가 녹색이고, 잎은 소엽(작은 잎)이 3개로 보이지만 복엽이 아닌 단엽이고, 종자는 편평하고 까락이 2개이다. 반면에 미국가막사리는 줄기가 붉은색을 띠고, 잎은 3개의 소엽(작은 잎)으로 된 진짜 복엽이고, 종자는 가막사리와 마찬가지로 편평하고 까락이 2개이다. 또한 가막사리에는 허꽃이 없는데, 미국가막사리에는 작은 허꽃이 있는 특징이 있다.



이인용
농촌진흥청

국내 토착종 가막사리는 늘어나지 않는데, 외국에서 건너 온 미국가막사리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는 미국 미시시피강 유역이 원산지인 미국가막사리는 홍수 등의 악조건에서

도 살아남기 위한 생존력이 자생종인 가막사리보다 높기 때문이다.

즉 비가 온 뒤 물살이 흘러 갈 때에는 미국가막사리 밑에 떨어져있는 수많은 종자는 자연스럽게 물에 떠서 물을 따라 이곳저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침수에도 강해야 하고, 키도 상대적으로 커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가막사리의 종자생산량은 1주당 약 7,000립에 이르며, 종자는 휴면성이 있어 흠속에서 16년까지 생존력이 있다고 한다. 다갈색의 미국가막사리 종자에는 2개의 까락이 바늘처럼 붙어 있다. 그 까락에는 낚



가막사리 초기



미국가막사리 초기

시바늘처럼 밑으로 향한 센 털이 나 있어 종자가 사람의 옷 등에 닿으면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동물 털에 붙으면 털 속으로 점점 파고드는 성질로 인하여 종자가 전파되고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미국가막사리 종자는 겨울을 걸쳐야 발아하는 휴면성이 강하고 광 발아성이다.

미국가막사리와 가막사리는 씨레질을 잘 못하여 논바닥이 고르지 못한 경우나 논물이 자주 빠지는 논에서 발생이 심하므로 씨레질 작업이나 물관리만 잘하여도 50% 이상의 가막사리류의 발생을 초기에 막을 수 있다.

가막사리나 미국가막사리는 논에서 문제되는 잡초로 방제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가을철 수확기에 농작업에 많은 지장을 준다.

즉 가막사리류의 종자가 옷에 붙어 피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목질화된 줄기는 콤바인에 무리를 주어 기계고장



미국가막사리 후기

을 유발할 수도 있다. 가막사리류를 방제할 수 있는 제초제 중 토양처리제는 설포닐우레아계 제초제를 교호살포하여 처리하면 된다. 경엽처리제로는 피리벤족심유제, 비스피리박소디움액제 또는 벤타존액제 및 벤타존액제 혼합제 처리로 방제할 수 있다.

가막사리나 미국가막사리와 비슷한 도깨비바늘(*Bidens biternata*)이 있다. 도깨비바늘은 비교적 건조한 곳에 자라며, 줄기가 녹색이고, 잎은 3-7개의 소엽으로 된 복엽이고, 종자는 둥글면서 까락이 3-4개로서 가막사리와 미국가막사리와는 완전히 다르다. Y